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3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7장 1절-8절

설교제목 : “이달리야에 가기로 작정되매”

드디어 바울의 로마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이송 항해에는 다른 죄수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을 맡게 되었습니다.(1절) 바울과 함께 승선한 다른 죄수들이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로써,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희생자들로 보여집니다. **아구스도대란** 아마도, 로마 황제의 직속부대로서 지방 부대를 지도 통제 연락하는 친위대였을 것입니다. **율리오는** 가문의 이름인데,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작정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또는 ‘**판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판결로 로마로 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게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행23:11)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단4:35, 엡1:11)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운명론과 숙명론과 다릅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것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참고 렘18:7-10)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된 것은 베스도 총독의 판결로 결정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의 판결을 작정해두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스도 총독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베스도 총독의 선택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드라 못데노에서 건조된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게 됩니다.(2절) 이튿날,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와 107km 떨어진 **시돈**에 정박하였습니다.(3절) 율리오는 시돈에 정박했을 때,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로 번역된 ‘**필루스**’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동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항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못데노 배를 탄 것은 율리오의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 일행과 동행한 것 역시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한 것 역시 그의 선택이었고, 바울이 시돈에서 같은 신앙의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한 것 역시 율리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 하나의 선택마저도 작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러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다음 구절을 봅시다. 시돈을 떠난 배는 ‘에데사’라고 불리는 맞바람(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구브로 섬을 끼고 우회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 **무라** 성에 정박하게 됩니다. **무라** 항은 국제 항구인데,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하였습니다.(4-5절) **무라** 항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애굽의 곡물을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로 운송하는 곡물 운반선을 발견하고는 그 배로 바울 일행을 갈아 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배 역시 맞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서, 천천히 항해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사리 **니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더 나아가

도록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이 탄 배는 **니도**에서 남하하여 **살모네**를 거쳐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 **미항**에 간신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인데, 동쪽으로 8km떨어진 곳에 **라새아** 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6-8절)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서 '**간신히**'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로마 항해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도 삶의 맞바람과 역풍과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기와 기회를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숨겨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난 경우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과 성도를 향한 윤리적인 뜻입니다. 혹은 사도행전 23:11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려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경우는 성경에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규범화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이 일어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겨놓으신 주권적인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을 알 수 없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의 작정과 운명론(숙명론)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